

이번 15차 하가다 집중 캠프에 다녀왔다. 14차 캠프에 참여한 후 15차 캠프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고 기간도 5박6일 이어서 갔다 오게 되었다. 하가다 하는 중 레마의 말씀도 찾고 읊조리면서 마가복음을 외웠다. 여러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 중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읊조렸다. 하가다 할 때 마다 선생님께서는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니 나의 모습과 같았다. 그 모습은 내 안에 군대귀신처럼 많고 많은 죄가 있는 모습이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라바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연극으로 다 같이 해보았다.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다 같이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다. 난 여기서 빌라도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학교나 밖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못할망정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감추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아팠다. 15장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렸다. 성소 휘장이 나의 상처, 아픔 등을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찢어져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후 짧은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애니메이션이었다. 그 때 세상에 있던 죄들이 하늘에 뭉쳐져서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은 아파하셨다. 그 후 예수님께서 숨지신 후 세상이 깨끗해졌다. 조금은 무서웠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성령집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14차 캠프에서는 이강주 목사님께서 모든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저스틴 김 목사님, 권오익 목사님, 김성은 목사님, 이보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다. 저스틴 김 목사님께서 학창시절에 목사님을 지원해주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주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다녔다고 하셨다. 그분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면서 다니셨다고 했다. 나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서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권오익 목사님께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기도를 해 주셨다. 성령 체험을 하겠다고 줄을 섰다. 내 양볼을 잡고 이마에 입김을 불었다. 갑자기 몸에 힘이 풀렸다. 목사님께서 목을 잡고 조금 돌리니 금방 쓰러졌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를 마친 후 일어났다. 목사님께서 다른 분들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계셨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한번 더 받았다. 그 때에 예수님의 등을 보았다 하얀색 옷을 입고 계셨고 엄청 빛나고 깨끗했다. 나에게서 점점 그 옷이 멀어져갔다. 놓치면 진짜 큰일나겠다는 생각에 우선 잡았다. 그러니 목소리가 들렸다. 내게 죄가 너무 많아서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정말 만나고 싶어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니 만나주셨다. 등밖에 보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예수님이셨다. 혈루병을 고친 여자처럼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회개하니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김성은 목사님께서 인강처럼 설명해 주셨다. 설교 후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진짜 뛰어놀면서 찬양하고 소리도 질렀다. 그렇게 신나게 찬양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뛰면 나도 뛰고 다른사람이 박수만 치면 나도 박수만 치고 했다. 근데 이날은 정말 다른 사람 눈치보지 않고 뛰어 놀았다. 그때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고 소리칠 때 이상하게 봐도 하나님은 좋게 봐주시고 계

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돌릴 때 뒤에서 수근거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찬양했다. 이보영 목사님은 이름만 들었을 때 여자이신줄 알았다. 근데 남자이셨다. 여자 목사님이 주변에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보영 목사님께서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 수진이 언니 받고 바로 다음 순서였는데 수진이 언니가 몸을 부르르르 떨면서 넘어졌다. 솔직히 놀랐다. 진짜 나도 저럴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물러서기에는 늦었다. 이미 받고 있었다. 나는 그냥 뒤로 편안히 누워졌다. 눈을 감았는데 눈앞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다. 눈앞이 밝아진 후 손이 보였다. 피 범벅이었다. 좀 징그러웠다. 구멍도 뚫려 있었고 뼈도 조금씩 보이고 핏줄과 근육이 찢어져 있고 살이 벌어지고 뜯겨 있었다. 갑자기 만져보라는 소리가 들려 쓰다듬어 보았다. 너무 징그러웠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다. 잡아보라는 음성이 들렸다. 너무 말라서 진짜 이게 잡은건지 모를정도로 뼈쩍 말랐다. 진짜 공익광고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팔처럼 가늘고 말랐는데 피가 흐르고 찢어져 있었다. 같이 천국가자는 소리가 들렸다. 그 때 든 생각이 천국가면 죽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하고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 갔다가 올수 있다고 했다. 진짜 속상했다. 알았으면 갔다 왔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어나라는 음성과 함께 기도를 끝내고 일어났다. 옆에서 예림이와 예인이가 울고 있었다. 예인이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말을 안해서 기절한 줄 알았다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보면 울만한 상황이긴 했다. 머리잡고 살짝밀면 사람이 쓰러지고 막 울고 일어나지도 않고 방언하는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울지말라고 달래주고 춤추면서 찬양했다. 갑자기 뒤에 도현이 오빠랑 예찬이 오빠가 사라졌다. 알고보니 성령 체험을 하고 있었다.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있었을 때도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옆에서 부채질해주고 기도도 해주었다. 둘다 방언도 터지고 회개도 하고 그 다음날에는 도현이 오빠가 소감 발표를 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감사했다.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수 없을 것 같다. 근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